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부 17학번 이상훈입니다.

2023년 7월 세아베스틸 수시채용에 합격하여 품질팀으로 입사예정입니다.

제 취업후기 글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여 두서없이 작성한 점 양해바랍니다.

1. 스펙

- 학점 : 4.0 / 전공학점 : 4.16

2. 어학성적

- TOEIC 760점
- TOEIC SPEAKING IM3(130점)

3. 자격증

- ISO 9001:2015 예비심사원
- ISO 14001:2015 예비심사원
- 6시그마 GB/BB
- 산업안전기사

4. 교육이수

- 생산/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 코멘토 품질직무부트캠프

5. 대내/외활동

- 효성굿스프링스 품질관리팀 기업연수 1개월
- YU TOP 엔지니어 역량강화캠프 with 에코프로
- 전자세라믹연구실 학부연구생(윤당혁 교수님)
- 교내 동아리(epsilon)
-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 대학생 재능기부 캠프
- 모나미 총동아리연합회 서포터즈
- 리갯타 행사 서포터즈
- 창리기 대상(교내)
- 재료공학동영상공모대회 은상(교외)

[스펙]

1) 학점은 높을수록 좋다.

학점은 대학교 4년 생활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점이 전부는 아니지만 높은 학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서류합격에서의 메리트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기중에는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기보다는 학점관리를 1순위로 두고 방학시즌에 스펙을 쌓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강과목 또한 원하는 산업군에 맞춰서 듣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에게 맞는 교수님 수업을 들어서 최대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산업군과 직무는 빠르게 정하는 것이 정말 좋다.

저는 4학년 2학기부터 취업준비를 했는데 이때까지 제가 원하는 산업군, 직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군은 후순위로 두고 6시그마, 통계적공정관리를 배워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품질관리 직무를 선택하여 비교적 늦은 시기에 직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보다는 직무중심적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무를 선택하고 서류를 낼 때 산업군을 가리지 않고 “품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를 붙고 면접을 가다보니 직무중심적으로 준비를 했던 제가 다른 면접자들보다 지식적, 소재과로서 기여할점 등 면접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산업군, 직무적으로 늦게 선택을 해서 힘들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군, 직무를 빠르게 정한 뒤 준비의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3) 대외활동은 직무, 인성적인걸 골고루 섞는 것이 좋다.(개인적인 생각)

대외활동은 공부이외의 대학생활의 인간관계, 적극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좋아해서 주로 멘토링, 서포터즈같은 대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전 하반기에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서 느낀 것이 인성적인 대외활동뿐 아니라 직무에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대외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최대한 내가 “품질”직무에 가고싶어서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찾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면접에 가서도 해당 활동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나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말을 하니 합격, 불합격을 떠나 면접관이 나에게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님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4) 교육이수는 진심을 보여주는 지표

3번 항목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내가 특정 직무에 대해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품질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했는데 사실 이수를 하면서 교육 및 실습의 내용 자체는 높은 수준의 퀄리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들으면서 받는 자료, 강사님들의 코멘트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 코멘트들을 받아적고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면접질문을 만들었던게 실제 세아베스텔 면접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님들도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듣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5) 자격증

자격증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취업자들 중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있고 자격증이 있지만 대기업을 가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품질직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품질과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격증이 서류합격의 전부는 아니지만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격증을 따신다면 우대사항에 적힌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품질직무를 희망하신다면 품질경영기사를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ISO, 6시그마 자격증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격증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취득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후배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굳이 따야하나?”, “별로 도움 안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당장 해야할 것이 있다면 자격증을 후순위로 미루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준비]

1) 어울림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자.

취업준비를 하신다면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취업박람회, 선배와의 만남, 역량강화 캠프, 기업분석자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더 빨리 찾아보고 다녀보지 못했던걸 약간은 후회했습니다.

다양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자기소개서는 경험을 정리하고 미리 작성해보자.

저는 자기소개서를 4학년 2학기때에 처음으로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보고 “아 이 항목에는 이걸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험을 정리한 뒤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보면 좋은 점이 내가 부족하거나 채워야할 경험, 역량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다양한 대외활동, 경험을 하면서 했던 것들을 정리하니까 작성을 하는 시간은 오래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님들도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하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채우는 활동을 찾아봐야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지만 저는 남들에게 저의 자기소개서를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 친구들은 물론 취업상담을 받을 때에도 첨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점이 있기 때문에 후배님들은 꼭 여러사람에게 첨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 자기소개서는 양으로 승부를 보자.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많이쓰다보면 하나는 얻어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취업준비 기간 동안 약 80개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 서류에서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도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많이 쓰고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면접준비는 최대한 꼼꼼하게 하자.

저는 면접준비를 처음에는 혼자하면서 면접에 떨어지다 보니 한계를 느껴 학교의 취업상담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선생님들에게 경험정리 틀, 답변피드백, 취업선배들의 면접복기 등의 정보를 얻으면서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취업스터디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면접스터디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질문, 당황스러운 질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취업 및 면접스터디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졸업 후 취업상담을 받은 케이스이고 여건 상 취업스터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저의 단점, 장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특히 작년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은 4학년 2학기부터 꾸준히 준비하여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1) 조급해하지 말자.

취업준비는 긴 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약없이 달려야 하는 레이스에서 지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멘탈을 부여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에 취업준비를 하면서 직무를 늦게 선택했어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꾸준히 할 것들을 하고 면접에서 정말 많이 떨어지면서 멘탈이 부서져도 “그래도 이런 과정이 다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멘탈을 잡았습니다.

사실 취업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안 조급해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품질관리를 준비한다면 회사마다의 품질업무를 잘 숙지하자

제가 품질직무에 대해 공부하고, 면접을 다니고, 회사연수를 하면서 느낀 것은 회사 산업군마다의 품질업무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주업, 제조 및 양산업의 품질업무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후배님들이 배우시는 통계적공정관리는 대부분 자동차, 제조업에서 사용하여 불량을 PPM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자 틀입니다. 하지만 수주업의 품질관리는 불량을 PPM단위로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파괴, 육안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주업 회사는 수주 프로젝트를 맞는 사람을 Project Manager(PM)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효성굿스프링스라는 회사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직무를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숙지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수주업을 하는 품질직무 면접을 가서 제가 떨어진 이유도 정확히 몰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작성해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이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10-4412-2127, ldw4412@yu.ac.kr 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연구생을 하게 해주신 윤당혁 교수님, 멘토링 지도교수 강지현 교수님, 연구실 친구들과 선배들, 취업준비를 도와준 친구들(변준혁, 김남협, 이동희, 최성원, 정종욱),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